

제작사 소개



데저트블룸픽처스는 한국과 미국에 기반을 둔 콘텐츠 프로덕션 회사로서 영화, 드라마, OTT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 등 **글로벌 영상 콘텐츠 전문 제작사**다.

이유정(Jennice Lee) 대표는 10년 이상의 영화 프로듀싱 경험을 바탕으로, 영화 <마이웨이>(2011), <미스터 고>(2011), <신과 함께 1 & 2> (2017, 2018)를 비롯해 Apple TV+ 시리즈 <The Big Door Prize>, 드라마 <사랑의 불시착>의 미국 리메이크 등 다수의 글로벌 콘텐츠의 개발, 패키징, 공동 제작에 참여했다.

데저트블룸픽처스는 한국의 롯데컬처웍스, 블라드 스튜디오, 미국의 플랜비 엔터테인먼트, 이매진 엔터테인먼트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하고 있다.



드라마 <리진>
(신경숙 소설 원작)



드라마 <온더스펙트럼>
(이스라엘 드라마 원작)



영화 <평양홈비디오>
(한-미 합작 공동 제작)



영화 <어글리더클링>
(한국계 주연 미국 영화)



영화 <배드민턴>
(이환경 제작, 인도네시아 합작)